

“산은 이전 막아낼 것” 노조 식발 강행… 갈등 장기화 예고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노조 저지에 일주일째 출근 못해
인근 사무실에서 업무보고 받아

투쟁 선포식 200명, 시위 500명 참여
조운승 위원장 등 3명 식발식 진행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노동조합(노조)의 출근 저지로 일주일째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임원들은 식발까지 하면서 산업은행 지방이전 반대 에 나서고 있지만 접점이 나오지 않아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조원들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출근 저지를 위해 일주일째 본점 입구를 막고 있다.

지난 7일 산업은행 회장직에 오른 강 회장은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인근 사무실에서 임원 및 부서장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조운승 위원장과 임원들이 '산업은행 지방이전 반대 대정부 투쟁 선포식'에서 투쟁의지로 식발식 진행했다. /금융노조 유튜브 캡처

노조가 강 회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이유는 산은 부산이전 때문이다. 산은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부산이전을 반대했지만 부산이전을 위한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금융노조 한국산업은

행지부가 여의도 본점 로비에서 '산업은행 지방이전 반대 대정부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조합원 약 200명이 참석했고 조운승 위원장, 김천순 수석부위원장, 김광섭 부위원장이 투쟁 의지를 다지는 식발식을 진행했다.

조운승 위원장은 선포식 후 "선포식이 진행되기 전 분회장, 대의원들과 모여 1시간 반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끝까지 싸우라는 이야기를 조합원들로부터 들었다"며 "산업은행 지방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선포식 이후 시위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첫 출근길 저지 당시 약 20명 정도였고 선포식 당일에도 약 70명 남짓이었다. 하지만 이날 아침 시위에는 약 500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투쟁의지가 나타났다.

강 회장은 여러 방식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노조는 지방이전은 대화의 소재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대화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 회장은 현재 노조와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또한 지난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산은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상 산은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산은 부산이전 추진을 위해 법까지 개정에 나서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 지방이전은 산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강 회장과 노조의 갈등은 단기간 끝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강 회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막는 것"이라며 "부산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절대 투쟁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co.kr

“보험사기 32% 이상 증가… 특별법 개정 절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토론회
작년 적발금액 9434억… 5% 늘어

“최근 지능화·조직화 경향 보여
효과적 대응 위한 내용확충 필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관석 의원은 14일 윤창현, 홍성국, 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6년간 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성행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이라는



14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윤창현(왼쪽 다섯 번째부터), 윤관석, 홍성국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지연 기자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과 소비자보호 균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보험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8986억원과 비교해 5% 늘었다. 적발금액은 손해보험이 8879억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198억원, 44.5%)과 장기보험(4319억원, 45.8%)에 적발금액이 집중됐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형사, 민

사, 행정 부문에 걸친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각 분야에 공통적인 핵심 쟁점은 보험사기의 적발 및 사실관계 규명”이라며 “보험사기는 다금융사기와 달리 산업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험사기는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액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직업별 적발현황을 보면, 보험업 종사자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의료업, 정비업 종사자 비율이 늘었다”라며 “법인 형태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적발금

액도 1000만원 초과건이 6988억원으로 전년보다 342억원 확대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다만 법 제정 이후 20대 및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어도 현재까지 개정된 바는 없는 모습이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으나,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함으로써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보험사기는 복잡성·다양성을 띄고 있고, 최근에는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강화가 자칫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실무상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강화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車 보험 인터넷 가입시 보장범위 등 따져봐야”

보험개발원, 판매 채널별 실적분석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장범위 및 특약사항 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판매 채널별 실적을 분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 가입(CM) 증가요인 및 가입 시 체크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대면채널이 46.1%를 차지했다. 보험가입대수 기준으로는 CM채널 비중이 40.7%로 인터넷보험 판매 이후 처음으로 대면채널을 앞질렀다. 텔레마케팅(TM)채널을 앞지른 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CM채널의 성장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고 가격에 민감한 20~40대 연령층이 견인했다.

대형차일수록 보험료가 비싸 가격경쟁 수요가 높을 수 있으나 CM가입률은 중형, 소형, 대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종 요인이 CM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차량정보통합 서비스(VeTI)의 활용으로 자동차 세부사양을 모르더라도 차량번호만 알면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고 소요 시간이 단축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보장내용을 설계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담보별 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 등 나에게 적합한 보장 범위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 가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상 관련 자동가입 특약도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농협·국민·하나 등 시중은행 IRP상품 모두 ‘적자’

>> 1면 '디폴트음선이 온다'서 계속

보험사별로는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상품 가운데 IBK연금보험이 -4.5%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푸른현대생명보험(-3.51%), 삼성화재해상보험(-3.43%) 순이다.

증권사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상품 1분기 수익률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1.18%, NH투자증권은 0.90%, 삼성증권은 0.89%를 기록했다. KB증권은 -0.57%, 한국투자증권은 -0.12%였다.

은행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상품도 모두 적자를 나타냈다. 농협은행의 -1.78%를 비롯해 국민은행(-1.69%), 하나은행(-0.67%), 우리은행(-0.66%), 신한은행(-0.38%) 등도 마이너스 수익률 상태다.

보험사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상품에서는 삼성화재

해상보험(-4.48%), 미래에셋생명보험(-2.81%), KB손해보험(-2.52%) 순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수익률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에 수익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